

써 그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자부심을 창출해 나간다. 지역 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이 지역에 큰 꿈을 품고 자기 책임하에 움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국내외 세계에서 만들고 서로 이어져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돈도 조직도 쓰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이다.

수장 토의

수장 토의 참가자



**중국 · 청두시**  
LI, Xudong  
외사교무변공실 비서처 처장



**일본 · 나가노현**  
고이와 마사타카  
기획진흥부 부장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Zaidi Attan  
주입법의회 의원



**일본 · 시마네현**  
이마오카 야스하루  
시마네 생활추진과 과장



**한국 · 경상북도**  
SON, Sam Ho  
관광진흥과 계장



**일본 · 도쿠시마현**  
다카다 히로시  
현민환경부 부장



**일본 · 후쿠시마현**  
가게야마 히로시  
후쿠시마현 오사카사무소 소장



**일본 · 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일본 · 나라현**  
곤고 가즈토모  
마을만들기추진국 국장



**일본 · 아스카무라**  
모리카와 유이치  
촌장



**일본 · 아라카와구**  
우메하라 가즈히코  
총무기획과 기획담당과장



**일본 · 고료초**  
야마무라 요시유키  
정장



**일본 · 이카루가초**  
이케다 요시노리  
부정장



**일본 · 나라현의회**  
이와타 구니오  
건설위원회 위원장

참가 지방정부 의견 교환 내용

1. 경관과 마을 만들기  
(1) 경관 보전 시책

- 일본은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구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시가화 조정 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아스카무라는 시가화 조정 구역이 많아 신규 택지화가 어려우나, 마을마다 경관 계획을 정한 건물의 경우는 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또 경관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스카무라의 땅값은 동일한 상황의 지역에 비해 약 2배 높다.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전입은 경관 유지에 찬성하는 젊은 세대가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일본 · 아스카무라)
- 이카루가초의 약 1/3은 고도법(古都法·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의 풍치 지구를 지정해 건폐율과 높이, 용적률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국가의 '거리 환경 정비사업' '역사적 지구 환경정비가로사업' 보조금을 활용한 경관 보조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 또 약 3년 전에 경관조례를 제정해 경관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 이카루가초)

- 오부세마치의 가쓰시카 호쿠사이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마을의 상징적인 옛 건물을 복원하고 주변 경관도 거기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통일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일본 · 나가노현)
- 고료초는 평탄한 전원 지대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하천 · 도로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약 30년 전에 지어진 뉴타운은 최근 들어 인도 폭이 좁고 식물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나와 마을 경관을 바꾸기 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택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 계획도 정하고 있다. (일본 · 고료초)
- 2005년의 경관법 전면 시행을 계기로 2007년에 향후 경관 보전을 위한 도쿠시마현 경관형성지침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내 8개 시정이 경관행정단체가 됐다. 역사적 · 전통적 경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와키마치의 ‘우다쓰 거리’가 문화재보호법의 전통 건축물 지정을 받아 보전에 힘쓰고 있다. (일본 · 도쿠시마현)
- 시마네현이 제초기 연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자와 기업에 도로 청소를 의뢰하고 있다. 시마네현 내에서만도 수백 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 시마네현)
- 개발과 보전의 초점은 경관이다. 나라공원과 헤이조큐 유적을 잇는 오미야 거리의 정체 해소를 위해 공원과 유적지, 도로, 산책로, 미술관 등을 일체 정비하는 ‘오미야 거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공원 · 궁터 구간을 100엔으로 운행하는 ‘순환 버스’와 경관 대책으로서 보도 화단을 정비하고 있다. 또 강변 잡초의 사전 제초 작업과 나라현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계절마다 색이 변하는 낙엽수를 심고 있다. 행정의 시책을 지역 주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지역 한정 간행물도 발행하고 있다. (일본 · 나라현)
- 지역 안에 있는 세계적인 매력을 활용하려면 조금 긴 안목으로 지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로하스의 성지로서 일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미국의 도시 볼더는 인구 약 10만 명의 작은 도시이나 고용 확대를 위해 대학을 유치해 성공을 거두었다. 주민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볼더에 연구실을 두는 것이 스테이터스가 될 정도로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 한정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경관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좋은 사례이다. 외관만 남기고 안은 자유롭게 꾸미도록 권장함으로써 경관을 지키고 있다. (고토 강사)
- 말레이인과 중국인, 인도인 등 여러 인종이 존재하는 말라카주는 다양하고 특별한 문화와 문명으로 독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더러운 강에서 아름다운 강으로 변모하고 있는 말라카강은 양안 모두 매우 좋은 상태로 탈바꿈했다. 지금은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이 강가를 찾아 즐기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체험을 제공해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싶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2) 과제

- 아스카무라는 고도법(古都法)의 특례법인 아스카법(아스카무라의 역사적 풍토 보존과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건물과 경관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규제에 의한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 · 건물의 고정재산세를 반감하고 그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국가의 보전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살기 어렵다는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복 단체의 마을 퍼레이드 등 신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기존 경관을 살린 새로운 문화적 · 역사적 경관 만들기에 착수했다. (일본 · 아스카무라)
- 아라카와구는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어진 목조 건물 밀집 지역이 60%에 이르고 재해 활동 곤란도를 고려한 종합 위험도가 도쿄도에서 가장 높은 지구를 안고 있다. 내화 건축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관계로 비용을 들여 재건축 · 이주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을 통한 마을의 안전 및 경관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얻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힘쓰고 있다. ‘마을 만들기는 100년’이라는 말처럼 진행이 쉽지 않으나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착실하게 추진돼야 한다. (일본 · 아라카와구)
- 지금의 3대 과제는 첫째, 국가가 법률로 자연공원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자신들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마을 만들기에 관한 새 이주자와 기존 주민들 사이의 인식 차이이다. 전자는 자연 보전을 후자는 개발을 원하고 있다. 셋째, 자기부상 열차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와 현의 시각 차이 조율이다. (일본 · 나가노현)
-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청두시는 문물 보호가 도시 발전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 발전과 경관 보존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층 건물의 기초 공사에서 3,000년전의 금사 유적이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고 금사 유적 박물관을 개설한 바 있다. 또 관자이상즈(寬窄巷子)는 더럽고 오래된 이미지로 인해 퇴거 대상이었으나 만주인 건축의 특색이 평가돼 보존 · 개발이 이루어졌다. (중국 · 청두시)
- 주택 경관 유지를 위한 지구 계획을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상업시설의 건축은 중지하고 2층 단독주택의 건축은 허가하는 조례가 3개 지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도 필요한 만큼 지구 계획을 어디까지 확대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의 노후화에 대해서도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서 재건축과 주변지역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 고료초)
- 경상북도에는 고민가 등 한국의 전통적 · 문화적 요소가 많다. 문화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보전된다. 활용을 통해 경관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다. 최근에는 숙박시설의 대부분을 대기업 호텔이 차지하는 만큼 한스테이(농촌 민박)를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스테이는 그 지역 주민들과 문화, 정감 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 문화가 활용되고 경관 보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한국 · 경상북도)

## 2. 고용 창출에 관해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많은 고용 기회가 상실되었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늘고 있으나, 이러한 위기가 세계 최첨단 로봇의 거점 건설 등 혁신의 계기가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활기있는 고용의 장과 희망찬 후쿠시마현 건설을 위해 도전해 나갈 것이다. (일본 · 후쿠시마현)
-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한스테이 별도 운영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보를 얻기 어려운 관광객을 위해 국내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의 사이트를 네트워크화하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민간 사회조직이 필요하다. (한국 · 경상북도)
- 시마네현은 기술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IT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또 시정촌의 경우 여름에는 여관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굴 양식업을 하는 등 연중 여러 업종을 혼자서 담당하는 ‘멀티 워커’와 전국적으로 개호직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개호 사업소에서 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최대 400만 엔을 조성하는 제도가 있다. (일본 · 시마네현)
- 고용 창출 시책의 하나로 창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의 강화가 있다. 또 심각한 고용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업계를 위해 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선정해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다양화를 고용 창출의 주된 시책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화폐 가치가 아닌 가치관으로 직업을 고르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일본 · 나가노현)

## 3.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역 부흥과 ‘하드웨어’ 정비

- 청두시는 지난 10~20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한 공업 도시로 사천요리와 천극 등 전통문화도 다양하다. 그러한 전통문화를 소프트 파워로서 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지’를 본 많은 사람들이 유비와 제갈량이 만든 촉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소프트 파워가 관광 흡인력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중국 · 청두시)
- 2020년 관광객 6,000만 명 달성을 위해 소프트·하드 양면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말레이인과 중국인, 인도인의 문물·전통의상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도쿠시마현이 추진하는 ‘문화의 힘을 통한 마을 만들기’의 상징적인 예로서 2년 전부터 현 남부에 위치한 인구 100명 미만의 작은 섬에서 시작한 예술행사인 ‘테바지마 아트전’이 있다. 5개월여 만에 1만 명 유치에 성공해 소프트(문화)의 위력을 실감했다. 이러한 성공의 정착과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향후 과제이다. (일본 · 도쿠시마현)
- 후쿠시마현 내에 로봇 연구시설을 개설해 기존의 로봇 기술을 초월한 세계 최첨단 로봇 거점으로 만들 계획

이다. 또 탈 원전을 위해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실증 실험을 추진함으로써 현민 출자를 통해 메가솔라 회사를 설립해 2040년에는 모든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 후쿠시마현)

- 나가노현은 고령화와 많은 중산간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규격 도로가 적고 산길이 많아 고령자가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마을 만들기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 나가노현)
- 지난해 현과 시정촌에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계 협정을 체결했다. 체결된 현과 시정촌의 시설 및 토지의 유효 이용과 주민 의견의 반영이 가능해져 하드와 소프트 양면에서 현이 재정 지원을 해 나간다. 향후 현과 시정촌이 결합된 마을 만들기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 나라현 의회)
- 마을 만들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마을 만들기에 기본 원칙은 없다고 본다. 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중요하나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의 나쁜 욕구를 억제하고 좋은 욕구를 이끌어 내는 의미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며 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에서도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 나라현)



## 총괄



**고토 겐이치** (주)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회장, 내각부 지역활성화 전도사

여러 지역과 다양성이 일본의 압도적인 자원이며 가치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을 소중히 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수단은 타 지역에 가보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가 보면 전혀 다른 가치가 보이게 된다. 반드시 직접 가봐야 한다. 오가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얻는 정보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세계는 Uber와 Airbnb 등 IT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IT 기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원인을 신중하게 검토하면 생각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확한 원인을 찾는 작업은 행정을 포함한 지역 만들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장소 문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깊이 분석하면 지역의 자랑과 아시아의 자랑이 발견된다. 그곳에 지인이 있으면 그곳은 자신의 장소가 된다. 이를 확대해 가면 아시아는 모두 우리의 장소라는 의식으로 전개·연결될 수 있다. 풍요로움의 차이를 각각의 개성으로 삼아 연계하며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면 다른 개성들이기에 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의 차이가 향후 마을 만들기의 키워드이다.

개성 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된다. 의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능숙한 말이 필수적이다.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마을의 체질이 바뀌게 된다. 자신의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 표현해 나가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수장 토의

## 테마3 '농업·농촌 진흥'

참가 지방정부	중 국: 안후이성 쑤저우시, 산둥성 동잉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한 국: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서산시 일 본: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나라현, 니가타현 니가타시, 나라현 나라시
강사	다카기 유키 NPO법인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이사장,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 강사 스피치



**다카기 유키** NPO법인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이사장,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세계 식량 수급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농업·농촌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지 집적 및 휴경지 해소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또 ICT와 로봇 기술 등 다양한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일본 정부는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농업과 식품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하는 '산업 정책'과 농업이 지닌 다면적 기능을 유지·발휘하는 '지역 정책'을 양륜으로 하는 농업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책으로는 먼저 안정된 식량 공급이 있다. 식품의 신뢰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무형 문화유산 '일식'의 보호·계승,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정확한 대응, 6차 산업화·수출·해외 진출 촉진,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식량 안전 보장의 확립 등이다. 다음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이다. 후계자 육성과 경영 소득 안정, 여성 농업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후계자를 위한 농지 집적, 구조 개혁 가속화 및 산업 생산의 기반 정비, 쌀 정책 개혁의 착실한 추진,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 생산·유통 환경의 기술 혁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기술 향상 등이다.

농촌 진흥을 위해서는 '다면적 기능 지불 제도'와 '중산간지 직접 지불 제도'의 착실한 추진과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집약과 네트워크화', 도시의 인재를 농촌으로 되돌리기 위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한 '일본 재흥 전략'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 자원을 통한 윤택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농업 소득 향상을 통한 생활 안정과 후계자 육성을 위한 농지 집약, 경영 안정화, 쌀 정책의 재검토 등을 실시한다. 두 번째, 생산물이 제대로 소비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기업과 연계해 상품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자금을 위한 펀드를 설립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축산·낙농을 성장 산업화한다. 세 번째, 수출 촉진을 위해 EU를 겨냥한 HACCP 인증 체제의 강화와 국가별·품목별 전략을 수립한다. 네 번째, 임업·수산업을 성장 산업화한다. 이상 4가지 시책을 공정표에 따라 실현한다.

기타 구체적 시책으로서 '마을·사람·일자리 창출'이 있다. '장기 비전'은 인구 감소 해소와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2015~2019년)의 '종합 전략'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여성 취업을 향상, 청년 세대의 정규직 고용 비율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공업·서비스업이 일체가 되어 서로 협조해야 한다. 또 저

출산 고령화로 취약이 산재하는 지역에서는 ‘작은 거점’ 을 만들고 버스 등 인프라로 각 마을을 연결하며 지역을 유지해 나가는 사례가 일본 전국에서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량 문제는 세계의 공통 과제이다. 세계 인구의 증가로 식량 수요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곡물 수확량은 부진한 상황이다. 식량 생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곡물은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의 경우도 자원의 제약을 감안해 효율적인 이용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수장 토의



일본 · 나라현  
오쿠다 요시노리  
부지사



일본 · 니가타시  
기무라 유이치  
부시장



일본 · 나라현  
후쿠타니 다케오  
농림부 부장



일본 · 나라시  
나카가와 켄  
시장

수장 토의 참가자



중국 · 쑤저우시  
ZHANG, Jinhai  
부비서장



한국 · 충청남도  
HEO, Seung Woog  
정무 부지사



중국 · 둥잉시  
HAO, Ligang  
농업국 부국장



한국 · 서산시  
JUN, Soo Il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Mohammad Taufiqbudi Santoso  
지방자치협력국 국장



일본 · 야마나시현  
깃타 교  
농정부 부장



한국 · 경기도  
SONG, You Myun  
농정해양국 국장



일본 · 시즈오카현  
요시다 시게루  
경제산업부 이사(농업담당)

참가 지방정부 의견 교환 내용

1. 농산물 소비 감소 대책

- 저출산 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외국산 쌀의 수입으로 쌀값이 급락해 농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쌀 이외 작물 재배 등 경영 전환과 농가 소득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다. 대책으로서 적극적인 쌀 급식 도입과 주조용 쌀 재배, 비료용 쌀 전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니가타시)
- 쌀값 하락과 농가 경영 파탄 등의 상황을 감안해 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지역 토양에 맞지 않는 작물도 있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가공용 토마토나 양배추와 같이 농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채소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 나라현)
- 차의 소비량이 줄어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산간 지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산간 지역의 차는 품질이 좋은 만큼 다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관광 소비액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 시즈오카현)
- 최근 커피 소비가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녹차 재배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지인 중산간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고추장 등 가공식품과 다양한 6차 산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 경기도)

## 2.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

### (1) 판로 확대

- 농산물을 맛있게 요리해 판로를 확대한다는 발상에서 요리 기술과 경영 감각을 겸비한 오너 셰프를 배출하기 위해 농업대학교에 요리사 양성과정을 둔 'NARA Agriculture and Food International College' 를 2016년 4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또 환대와 서비스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관리자로 지정한 오베르주를 대학 내에 오픈했다.

(일본 · 나라현)

- 농업은 포괄적인 논의가 아닌 개별 작물에 대한 적절한 전략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는 소비 확대를 중심 테마로 관광과 농업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매소와 지역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복합형 관광안내소 정비와 여관이나 호텔 객실에 시음용 나라 고급차를 서비스하고 로비에서도 판매하는 방법,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브랜드 딸기를 무료로 제공해 인지도로써 귀가 후에도 구매를 기대하는 등 다양한 판매 기회를 만들어 나라는 농업의 잠재력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 나라시)

- 서자바주에서 재배한 생강류에 관심이 있다. 품종 개량과 다른 농업에 대한 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 서산시)

### (2) 부가가치 창출과 향상

#### ① 품질 인증 제도

- 일정 이상의 당도를 갖춘 나라현 특산 딸기와 감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증해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시즈오카현에서는 차 이외에도 감귤과 화훼, 딸기, 토마토, 멜론 등의 재배도 활발하며 수년 간격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있다. 또 '시즈오카 식(食) 셀렉션' 이라는 인증 제도를 마련해 지금까지 100건 이상이 고품질로 인증됐다.

(일본 · 시즈오카현)

#### ② 스토리성

- 부가가치 창출에는 질과 경제적 부가가치 향상, 소비를 촉진하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나라는 다도 등 문화를 통한 차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다도 유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과회 '珠光茶会' 를 개최함으로써 차뿐만 아니라 과자와 전통공예 등에도 파급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발상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소비가 확대되고 부가가치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 나라시)

- 일본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야마나시현의 포도와 복숭아, 자두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목표로 현과 현 내 3개 도시가 연계하고 있다. 세계농업유산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5곳이 등재되어 있다. 아직 인지도는 낮지만 등재를 원하는 곳은 늘고 있다. 인증되면 스토리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일본 · 야마나시현)

- 2013년 시즈오카현의 '차초장(茶草場) 농법'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인정되었다. 품질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자연의 채초지에서 벤 풀을 차밭에 넣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풍부한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평가된 것이다. 상품에 '차초장 농법' 으로 재배한 차의 양을 표시해 생태계 보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결과 큰 인기를 얻었다.

(일본 · 시즈오카현)

## 3.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 (1) 자금 조달

- 동잉시의 농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농가 규모가 매우 작아 대출과 담보 설정이 곤란하다.

(중국 · 동잉시)

- 일본의 경우 농업인이 대출을 받는 방법은 농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금융 사업을 통한 대출과 상공조합 중앙금고를 통한 대출이 있어 일반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 동잉시보다는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본다.

(일본 · 나라현)

- 일본의 농가는 서로 역할이 다른 민간 금융과 정책 금융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농협은 기계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나 민간 기관이므로 장기 대출은 불가능하다. 장기 시설 자금의 대출은 정책 금융기관이 맡는다. 농업은 담보 설정과 리스크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저이자로 장기 융자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만큼 보증 제도를 마련하거나 국가 또는 성 수준에서 정책 금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카기 강사)

-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대출 제도가 있다. 각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융자하고 농협을 통해 대출받고 있다.

(한국 · 경기도)

-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농업 기업 등 3대 경영체는 국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에는 농가가 매우 많으나 개인 소유의 토지가 적은 관계로 스스로 농업 생산 규모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효율이 좋아지면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 동잉시)

- 가정 농장, 농민 합작사, 농업 기업 등 3대 경영체를 모체로 농업 기업이 중심이 되어 가정 농장과 농민 합작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협조하는 것이 쑤저우시의 전형적인 농업 모델이다. 정부는 3대 경영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 쑤저우시)

## (2) 신규 취농자 확보와 지원

- 최근 10년간 농업 종사자가 약 25% 감소했다. 주력 상품의 하나인 녹차의 경우 매입 가격이 최근 수년 간 하락해 농업 전체가 활기를 잃어 가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특히 청년들의 신규 취농도 눈에 띈다. 또 당도 높은 딸기와 유기·무농약 녹차는 높은 부가가치로 가격이 비싸도 인기가 많아 다른 산업 종사자가 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나라시)
- 일본의 농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신규 취농자는 토지를 빌리게 된다. 각 지자체 농업위원회의 알선이나 농지뱅크 제도를 통해 빌릴 수 있다. 또 시설을 정비할 때는 대출 외에 보조 제도도 있다. 신규 취농에 대한 자금 공여에는 청년 취농 조성금이 있다. (일본·시즈오카현)
- 일본의 농업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취농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다카기 강사)

## (3) 기업의 농업 진출

- 농업의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니가타시는 농업생산법인의 임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대형 편의점 사업자 등 민간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 농업 진출 및 농업 관련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도 늘고 있어 농업 특구의 파급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일본·니가타시)

## (4) 인력 육성과 지원

- 기업적 경영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 경영체를 만들어 약 15년간 육성에 힘써 왔다. 경영자 자질 향상과 신상품 개발 경험이 있는 강사가 강의를 실시하는 이른바 농업 비즈니스 스쿨이다. 지금까지 평균 매출 2억 엔 규모의 경영체가 350곳에 달한다. 이 350곳 경영체의 현 전체 생산에 대한 비율을 지금의 1/4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시즈오카현)
- 니가타시는 경영 규모의 복합화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는 의욕 있는 개인 농가에 대해 ‘의욕 있는 농가 지원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농업을 포함한 식품 관련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니가타 뉴 푸드밸리’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관학 연계를 통한 농업인의 6차 산업화 지원과 어그리 파크를 통한 기술 지도, 초등학교 전원에게 농업 체험을 실시하는 ‘농업 학습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니가타시)
- 지방정부가 농업을 지원할 때는 농업의 시장 가치(경쟁력)보다 비 시장적인 기능과 비 시장적인 가치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한국·충청남도)

## 4. 농업의 다면적 기능

- 대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하천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생강류를 재배해 환경 파괴를 막을 계획이다. 생강류 재배에는 지역 사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배 종사자들의 소득도 향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서자바주)
-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논에는 치수 기능도 있다. 나라현은 논두렁을 약 10cm 높여 치수 기능을 높이고 있다. 하천 하류의 물 부담 경감과 홍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저수지 여수토도 높이를 높여 물이 고이기 쉽게 하는 등 저수지에도 치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나라현)
- 대부분이 평야인 니가타시는 하천 독이 무너지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 제방을 강화하고 먼저 논에서 빗물을 흡수하게 하는 ‘논 댐’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니가타시)



## 총 관



**다카기 유키** NPO법인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이사장,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농업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지역 문화와 전통, 역사 등을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각 지방정부의 발표를 통해 그들의 활용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청년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농업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결국 농업인의 창의력과 노력을 상실시켜 항구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이 농업을 계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 즉 농업인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쉬운 구조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일본의 농지 제도와 같이 각 국가와 지역의 농업인이 장벽이라고 느끼는 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제도의 장벽을 농업인이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낮춤으로써 농업인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어우러져야 농업이 강한 산업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농업 경영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역에 살고 서로 협조함으로써 지역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농업 경영자의 창의력과 노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농업 경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이 산업으로 뿌리내리면 다면적 기능도 유지된다.

당연히 국가와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분과회 등 보고

### ◆지역별 분과회 보고



### 관광진흥 '인바운드 촉진' 오히라 가즈키

미에현 고용경제부 국제전략과 과장보좌

8월에 미에현에서 '관광 진흥 "인바운드 촉진"' 을 테마로 개최된 분과회에 9현 4시정촌이 참가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방일 2,000만 명 시대' 를 향한 액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일 외국인 수는 2015년 8월 말 현재 1,287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은 특정 관광지인 골든 루트에 집중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인바운드를 통한 관광 진흥을 위해 승룡도(昇龍道) 프로젝트 등 새로운 관광 루트의 가능성을 찾는 움직임도 생겨나

고 있다.

분과회에서는 인바운드 촉진 사례와 과제에 관해 각 현과 시정촌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의견 교환에서는 통과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외국인 관광객 방문 지역의 편중 해소, 민간의 힘 향상, 인근 현·시정촌과의 연계, 수용 환경 정비 등이 공통 과제로 꼽혔다. 또 광역화를 둘러싼 과제와 착지 정비, 홍보, 할랄 대응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분과회 발표와 의견 교환을 통해 외국인 눈높이에서 바라본 문제 파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민간사업자 협력·인재 육성 등의 과제가 지자체에 요구되고 있다고 느꼈다.

### ◆관련 포럼 보고



###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HEO, Seung Woog

충청남도 정무 부지사

충청남도는 3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 3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3농 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서 농업인 등을 주제로 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이 2015년 9월 충청남도에서 개최됐다.

첫날은 한중일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2일째 제1부에서는 한중일 각 지방정부가 각지의 3농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원이며 농업인과 농민의 보호·육성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는 점, 그리고 농업과 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공유했다. 제2부에서는 나라현 아라이 지사가 '일본 농업의 과제와 나라현의 농업 시책' 을 테마로 농업의 고령화·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진흥 활동에 관해 강연했다. 또 중국 베이징대학 치우저지 교수는 '중국의 3농 정책 현황' 에 관한 강연에서 3농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 인적 자원의 가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부 3농 정책 포럼에서는 농업 전략과 농촌 문화, 농민의 힘 향상과 농업의 현대화 등 다양한 테마에 관해 한중일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업·농촌·농민은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존재이다. 향후도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교류를 촉진시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 총 회



## 의 장 보고

###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 신규 가맹 지방정부 소개
  - 중국: 쓰촨성 청두시, 안후이성 쑤저우시
  - 일본: 도쿄도 아라카와구
- 사무국 보고
  - 제7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최에 관해

## 신규 가맹 지방정부 소개



### 중국 · 청두시 ..... LI, Xudong 의사교무변공실 비서처 처장

이번 회합의 정식 회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제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향후 나라현과 기타 지역의 여러분과 교류하고 우호를 다지며 서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



### 중국 · 쑤저우시 ..... ZHANG, Jinhai 부비서장

여러분의 국가와 지역의 농업 발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각 지방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민간의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상황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 일본 · 아라카와구 ..... 우메하라 가즈히코 총무기획과 기획담당과장

아라카와구는 도쿄의 소규모 지자체로 주민의 행복 실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에 임하고 있다. 현재 70개 이상의 시정촌과 통칭 '행복 리그' 라는 기초 지자체 연합을 구성해 주민의 행복 실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회합을 통해 동아시아라는 넓은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

# 대표 기자회견



###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제6회 제를 맞는 이번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는 7개국 43개 지방정부가 참가해 주셨다. 세 분의 강사(야마다 케이치로, 고토 겐이치, 다카기 유키)와 함께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농업·농촌 진흥' 의 3테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신이 참가한 '마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에서는 강사와 각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매우 뜻깊고 결실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해마다 높아져 뜨거운 분위기 속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조 연설은 다이빈 중국여행연구원 원장이 맡아 주셨다. 또 올해 처음 개최한 분과회에서는 미에현이 인바운드 촉진을 테마로 개최한 지역별 분과회에 관해, 충청남도가 관련 포럼으로 개최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에 관해 각각 보고해 주셨다. 아울러 이번 회합의 개최에 협조해 주신 일본국 총무성·외무성과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올해도 나라에 오셔서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중국 · 산시성** ..... YANG, Zhongwu 관광국 국장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6회 째를 맞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 일본과 나라현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관광과 우호에 깊은 역사를 지닌 산시성은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회합의 3테마 모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내용들이다. 우리는 이번 회합에 농촌 관광을 테마로 참가했다. 중국의 농촌 관광 진흥은 농촌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 농민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중국의 농촌 관광 진흥은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 Mohammad Taufiqbudi Santoso 지방자치협력국 국장

서자바주의 인구는 인도네시아 최다인 약 4,600만 명에 이른다. 자카르타와 가깝고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번 회합을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서자바주에 활용하고 싶다. 서자바주는 발전을 중시해 왔으나 향후는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Zaidi Attan 주입법의회 의원

이번 회합의 참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 말라카주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 정보 공유의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한다.

말라카주 중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을이 있다. 말라카주에 오시면 말레이시아 전체를 본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으니 꼭 찾아 주시길 바란다.



**한국 · 충청남도** ..... HEO, Seung Woog 정무 부지사

따뜻한 환대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아라이 쇼고 지사를 비롯한 나라현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회원인 충청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업·농촌·농민을 테마로 한 '3농 포럼'을 개최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인 만큼 내년에 열리는 제2회 3농 포럼은 우리 농촌 대표와 농민 대표, 지방정부 대표를 포함한 많은 농업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회합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류와 경험을 충청남도 도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베트남 · 푸토성** ..... HOANG Cong Thuy 부성장

우리를 성대하게 맞아 주시고 회합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

이번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다섯 번 참가하게 되는 푸토성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참가했다. 매우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더없이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수도와 가까운 푸토성은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향후 관광 진흥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힌트를 얻게 되었다. 푸토성민과 지방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일본 · 시즈오카현** ..... 요시다 시게루 경제산업부 이사(농업담당)

시즈오카현은 농업·농촌 진흥의 테마로 참가했다. 지역마다 특유의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6차 산업화와 수출 촉진, 귀농·귀촌 등 일본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회합의 공통 테마로 꼽힌 데 대해 크게 놀랐다.

토의에서는 시즈오카현이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녹차'에 대해 보고했다. 녹차를 생산하고 마시는 문화는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또 녹차는 건강에 매우 좋고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5월과 10월에는 시즈오카현이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녹차 축제'가 열린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란다.



## 각 강사 코멘트



### 야마다 케이치로 JTIC.SWISS대표, 정부인정 관광 카리스마

올해는 작년의 ‘관광 진흥’을 더욱 구체화한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의 진흥’이라는 테마로 토의했다. 각 지방정부 대표로부터 각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과제가 발표됐으나 큰 의견 차이 없이 경제 활동에 집약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특히 지역경제에 관한 시책으로 외화 획득이라는 관광 산업의 역할과 지역 내 현금 유동성에 따른 과급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 지역 자원의 경우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보존과 활용 등 생태관광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활동 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달성하는 성과이나 지방 행정이 맡아야 할 역할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됐다고 본다. 그러한 공통된 인식이 각 지방 정부의 향후 정책과 시책에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으나 자립한 지역,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과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 등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다.



### 고토 겐이치 (주)Prot Asia and Pacific대표이사 회장, 내각부 지역활성화 전도사

마을 만들기는 모든 것과 결부되어 있다. 테마1 ‘관광’ 과 테마3 ‘농업’ 을 포함해 각자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 테마를 좁혀 공통 과제로 논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꼈다. 한편 5,000명의 마을에서 400만 명의 도시까지 참가 지방정부는 인구와 면적, 역사, 문화 등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과제도 안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공통된 부분에 관한 연계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아라이 지사의 말씀대로 배운 것을 솔직하게 모방하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번 토의는 실제로 각 지역이 향후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만남과 계기가 됐고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 또 각 지방정부의 과제와 역할이 다르기에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이번 회합을 통해 형성된 향후 서로 연계하며 각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운을 잘 살려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 다카기 유키 NPO법인 일본프로농업종합지원기구 이사장, 전 농림수산 사무차관

농업은 농업이 영위되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한 농업의 특성과 조건이 서로 다른 가운데 불리한 특성과 조건을 유리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약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장점을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농업이 지역에 뿌리내린 지금,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이 다면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결국 농업의 산업화이자 강한 농업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그러한 현장과 실패를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경영의 지속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더욱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각 지역은 자신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 교류회



### 나라현명산 후유카키 (단감) 소개



### 기념 촬영



지사 초청 연회



The 6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신문 기사



익스커션



2015年10月27日(火) 朝日新聞 奈良版(朝刊33面)  
Oct. 27, 2015 (Tue.) Asahi Shimbun (Morning paper P.33)



3テーマに分かれて行われた首長討議=奈良市三条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

県主催の「第6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6日、奈良市で開かれ、アジア各国の地方自治体トップらが共通の課題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互いの施策を学んだ。日中韓など6カ国の42地方政府が参加した。表。

# 観光・農業…互いに学ぶ

## 東アジア6カ国の42地方政府が会合

- 参加した地方政府一覧
- 【中国】河南省、陝西省、成都市、黄山市、宿州市、東營市
  - 【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ジョクジャカルタ特別州
  - 【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
  - 【韓国】京畿道、忠清南道、公州市、瑞山市、扶余郡、慶尚北道
  - 【ベトナム】フートー省、ベッチ市
  - 【日本】青森県、山形県、福島県、新潟県、福井県、三重県、長野県、静岡県、香川県、京都府、和歌山県、徳島県、奈良県、東京都荒川区、新潟市、奈良市、天理市、橿原市、御所市、鹿嶋町、明日香村、広陵町

まず中国旅遊研究院の戴院長が、「中国人観光客から見た奈良」をテーマに基調講演した。中国人が5年後には年5回の旅行を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予測を紹介。「奈良や日本は、国民やサービスの質の高さが最大の競争力。中国人旅行者の大きな受け入れ先になる」と述べた。

続いて首長ら自治体代表がテーマごとに三つのテーマに分かれて議論した。「観光による地域経済の振興」には中国・河南省やベトナム・フートー省などが参加。地域力創造アドバイザーの山田桂一朗さんが「観光による地域経済の振興」には中国・河南省やベトナム・フートー省などが参加。地域力創造アドバイザーの山田桂一朗さんが

「一旅先として選んでもらう必然性を高めるマーケティングが重要」と提言。通過型から滞在型への転換や、魅力的な宿泊施設をつくる試みについて、代表者らが事例紹介や意見交換をした。

効。学ぶことが多かった」と振り返った。荒井正吾知事は「分科会や本会合を奈良以外で開く動きもある。回を重ねるたびに内容も濃くなり、充実した討議ができた」と述べた。

(討議の詳しい内容は、後日、紙面で紹介します)  
(青山祥子、京沢輪英)

2015年10月27日(火) 読売新聞 奈良版(朝刊35面)  
Oct. 27, 2015 (Tue.) Yomiuri Shimbun (Morning paper P.35)

## 東アジアの43自治体 地域経済振興で会合

奈良

県主催の国際会議「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6日、奈良市内のホテルであり、日本と中国、マレーシアなど計6カ国から、43の地方政府・自治体の関係者約170人が出席。地域経済の活性化策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

平成遷都1300年を記念して2010年に始まり、今年で6回目。荒井知事は開会式で「事例を詳しく紹介し、参考にできる貴重な場にした」とあいさつ。

参加者は「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観光による地域経済の振興」「農業・農村振興」の3分科会に分かれて意見交換。「まちづくり」では、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で川沿いの環境整備がホテル誘致につながった例などが報告された。

2015年10月27日(火) 日本経済新聞 近畿版(朝刊35面)  
Oct. 27, 2015 (Tue.) The Nikkei (Morning paper P.35)

## 6カ国43地方政府が参加 東アジア



開会の挨拶をする 荒井正吾奈良県知事(奈良市)

奈良県が主催する第6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が26日、奈良市で開かれた。中国、韓国など日本を含めて6カ国の43地方政府が参加し、観光、まちづくり、農業について地方の抱える問題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

まず戴斌・中国旅遊研究院院長が基調講演し、「中国でバスポートを持つているのは国民の6

%で、今後10年は訪日観光客の多い伸びが期待できる」と状況を説明。個人客が気軽に旅行できるように公共交通やサービスが気軽に旅行できるよケティンクの発想の欠如などを指摘。その後、宿泊施設不足に対応するための民泊の可能性や、通過型から滞在型観光へ転換する方法などについて議論した。

2015年10月27日(火) 毎日新聞 奈良版(朝刊24面)  
Oct. 27, 2015 (Tue.) Mainichi Newspapers (Morning paper P.24)  
毎日新聞社承諾済

## 観光や農業振興議論

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東アジアや国内の地 政策課題を議論する  
方自治体などが地域の「第6回東アジア地方

政府会合」が26日、奈良市であった。6カ国42自治体の首長らが参加し、観光や農業振興について話し合った。会合は県が国内外の自治体に呼びかけて2010年に始まった。今年の予算は約7500万円、国内の16府県9市区町村のほか、中国(6省市)・インドネシア(2州)・マレーシア(1州)・韓国(6道市郡)・ベトナム(2省市)が参加。観光による地域経済振興、まちづくり、農業・農村振興の3テーマで議論を交わした。

記者会見で荒井正吾知事は「大変意義深い、実り多い議論となった」と強調。各国の代表者は「ここで得た経験や知識を持ち帰って活用したい」などと述べた。【伊澤拓也】

2015年10月27日(火) 奈良新聞(朝刊3面)  
Oct. 27, 2015 (Tue.) Nara Newspaper (Morning paper P.3)

テーマごとに議論を交わした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26日、奈良市三條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



東アジア地域で共通する課題についての議論を通じて相互理解を深め合う第6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県主催、観光・外務両省後援)が26日、奈良市三條本町のホテル日航奈良で開会式と首長レベルの十数人ずつによる首長討議などを行った。会員7カ国68地方政府のうち6カ国42地方政府の代表が参加した。

# 深まる絆、相互理解

## 観光、農業など論議

### 奈良で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開会式では、荒井正吾知事と地方自治研究機構の石原信雄会長があいさつ。石原会長は「回を重ね、大きな成果を残してきた。国と国との信頼関係も培われた」と同会合を高く評価した。

討議テーマは「観光による地域経済の振興」「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農業・農村振興」の三つで、荒井知事もまちづくりのグループで発言するなど、活発な論議の輪が広がった。

荒井知事は、県が奈良市内で進めているまちづくり事業「大宮通りプロジェクト」に触れながら景観問題に言及。「まちづくりの課題として『保存と開発』の両立は景観、案内と広告という質の

違うものの表示の扱いなど、新しさや古さをどうまちの景観に生かすかは今も大きなテーマだ。新住民と旧住民の確執という問題もある」と指摘した。

開会式に続いて行われた基調講演は、中国旅游研究院の戴斌院長が「中国人観光客から見た奈良、中国人観光客を奈良へ誘致する好

機」と題して行った。戴院長は「中国人の海外観光はまだ発展中。少なくとも今後10年は続くのでは」と述べた。

2015年11月14日(土) 朝日新聞(朝刊33面)  
Nov. 14, 2015 (Sat.) Asahi Shimbun (Morning paper P.33)

## 発展の土台



会場では様々な自治体の課題が活発に話し合われた。奈良市三葉本町

**農業・農村振興**  
「農業・農村振興」では奈良市や韓国・京畿道、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などの代表が取り組みを話し合った。NPO法人日本プロ農産物総合支援機構の高木義雄理事長は「国際的な食料事情を課題に挙げた。人口増で需要が増す一方、穀物の単位面積あたりの収量の伸びは鈍化している。播種、災害や異常気象で大きく減る不安定性に悩む。各国で食料の取組みが必要時代になっている」と話した。

## 物語で付加価値高める

静岡県の吉田茂経済産業部理事は、中山間地域の茶園の景観を生かして国内外と交流し、地域振興を図る考えを説明。京畿道のソン・ニョム農政担当局長は「コーヒーに押されて緑茶生産を諦める農家が出るなかで、韓国でも観光地化を進める考えを示した」。

農業の多面的機能も話題になった。西ジャワ州のマンソド・タフィンクティ・サントノ地方自治体長は、河川の汚染防止のため、環境に配慮したシウカ類の栽培を官民で進めていると説明。所得の向上についても話した。

奈良県が来春つる「なま食」と農の魅力創造国際本学校も関心を集めた。福富大・農産林部長は「県産農産物を発掘して料理することで販路拡大につながる」と説明した。

### 南北に誘客 議論

8月に三重県で「インバウンドの促進」をテーマに地域別分科会を開いた。東は山形から西は鳥根までの9県などが参加した。訪日外国人は今年1900万人に達する見込みだが、東京から富士山を見て名古屋、京都、大阪というルートに集中しており、南北に動いてもらう対応策を議論した。奈良県では斑鳩町が法隆寺だけでない歴史的な街並み巡りを提議。明日香村は民家に宿泊してもらう試みなどを報告した。外国人目線で安心できる案内表示や地域活性化につながる観光、民間の人材育成などが今後の課題になる。

### 「農業は芸術活動」

9月に韓国・忠清南道で「三農フォーラム」を開催した。日中韓の地方政府代表者が参加し、農業・農村・農民のための政策や課題について話し合われた。静岡県は「農業は芸術活動である」として、農業者を芸術家として表彰していることを報告。奈良県の食と農をつなぐ専門料理人の養成、韓国・世宗特別自治市のローカルフード運動、中国・陝西省の傾斜農地の耕作地化などの紹介もあった。国を維持するために、農村や農民は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と位置づけ、農業政策の持続的な交流・協力が提案された。

◆この特集は青山祥子、丑田滋、古沢範英、堀内義男(写真)が担当しました。

## 第6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日本、中国、韓国、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ベトナムの6カ国42地方政府(自治体)の首長や代表が共通の課題について話し合う「第6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奈良県主催)が10月26日、奈良市のホテル日航奈良で開かれ、観光や街づくり、農業について活発な議論を交わした。

## 奈良から築く

**観光**  
「観光による地域経済の振興」には鳥取県や中国・河南省、韓国・公州市、扶余郡などの代表者が参加した。地域力創造アドバイザーの山田佳一郎氏は、旅先として選ばれる必然性や観光客にどんな価値を提供できるかの理念・戦略が重要だと指摘。行政の役割として住民間の利害対立の調整や人材育成を挙げた。

河南省の主政林洛陽市副市長は「河南省への観光客数は西安市と同程度だが、観光収入ははるかに低い。サービスの質を向上させ消費額を上げた」と話した。

## 国境越え 登山・島巡りへ

観光消費を増やし、地域活性化につながる取り組みも紹介された。鳥取県の吉村文宏観光交流局長は、韓国の登山好きを対象に米子空港直往便を使う大山登山をPRし、世界のアニメファンが県内にある漫画家の記念館を訪れている実績に言及。香川県の安松延朗交流推進部長は瀬戸内海の島巡りや、讃岐うどんの手打ち体験が好評だという。公州市のミン・ギョク副市長はネット上で名譽市民を募り、訪れた人に宿泊や特産品の割引をしているという。

通過型から滞在型への移行。宿泊施設もあり方もテーマになった。扶余郡のイ・ヨング守は「民泊や有名寺院に泊まるテンプルステイなど多様な宿泊を用意している」と述べた。

中国旅遊研究院の戴斌院長は「工業品を売る場合も、生産過程を見せるなどして物語性を付け加えることが地域の活性化につながる。住民参加も重視す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

**まちづくり**  
「まちづくり、地域づくり」では中国・成都市や韓国・慶尚北道、奈良県明日香村などの代表が景観保全や開発とのバランスについて議論した。進行校の後継都市・プロットアジアアンドパシフィック会長は「面白いこと、楽しいことには勝手に集まり、時間もお金も使えば、強手になり、地域資源の活用例として、収穫前的小麦畑の景観を生かしたカフェなどを紹介した」。

成都市で国際交流を担当している李旭東・外事商務辦公室秘書長は「文化の独自性を維持しながらどう発展させるか」と話した。

## 独自性と発展 両立課題

奈良県明日香村長は、敷いた建築制限で歴史の景観を守り、固定資産税を減免する「明日香法」について説明した。「住みにくい」とは思われて、新しい文化をつくりだして維持しようという取組んでいる」と話した。

慶尚北道のソン・サム水産振興課課長は、フランスの農村民泊を参考にした伝統家屋を宿泊観光に生かすネットワーキングづくりに言及。「文化の活用が保全と発展につながる」と話した。

奈良県の荒井正吾知事は「保存だけでなく、積極的に活用できるのか。サービスの雇用づくりが課題だ」と述べた。

福島県の景山博・大阪事務所長は、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まちづくりを報告。例として、原子炉廃炉のためのロボット研究施設の一部オープンを挙げた。さらに観光開発で2040年ごろまでに、すべてを再生可能エネルギーでまかなう構想に触れ「挑戦を続け、夢のある福島県にしたい」と話した。

**より自由で質の高い観光 期待**  
基調講演  
中国長が述べた。中国の旅行に対する認識も変わった。かつては外貨を稼ぐ手段だったが、消費を牽引する戦略に組み込まれた。中国人観光客は海外で質の高いサービスに求め、プラスの影響を受けている。旅行は都市住民や中産階級にとって欠かせないものになった。海外に目を向けていく必要がある。

## 7カ国の68地方政府が加盟

2010年の平成遷都1300年を機に、奈良県の呼びかけで始まった。平城京とその文化が、東アジアを中心とした文明の恩恵を受けて形成されたことへの感謝を込め、東アジアの発展の礎を築いていこうと企画された。中国、韓国、ベトナム、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日本の7カ国・68地方政府(自治体)が加盟している。

## 7カ国の68地方政府が加盟



会場で奈良県産品の試食を試みる参加者たち

- 会合に参加した地方政府
- 中国=河南省、陝西省、成都市、廣州市、宿州市、東營市
  - インドネシア=西ジャワ州、ジョクジャカルタ特別州
  - マレーシア=マラッカ州
  - 韓国=京畿道、忠清南道、公州市、瑞山市、扶余郡、慶尚北道
  - ベトナム=フートー省、ベツ市
  - 日本=青森県、山形県、福島県、新潟県、福井県、山梨県、長野県、静岡県、三重県、京都府、和歌山県、鳥取県、島根県、徳島県、香川県、奈良県、東京都荒川区、新潟市、奈良市、天理市、橿原市、御所市、斑鳩町、明日香村、広陵町